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말이 있다. 웃음이 있는 가정엔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소문만복래는 가정은 물론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우스웨스트(Southwest)는 고객 불만이 가장 적은 항공사, 30년간 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항공사, 시간을 잘 지키는 항공사, 짐 분실이 없기로 유명한 항공사이다. 또한 포춘지가 선정하는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에 단골로 상위권에 선정되고 있으며, 1971년에 설립된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으며 고속성장을 해온 회사로서 최근 20년 주가 수익률 1위 등 수많은 신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성과는 경쟁 항공사들이 따라가기 힘든 경영전략이 주요한 원인이다. 비행기 기종을 하나로 통일하여 관리비용을 줄이고, 이착륙 시 소규모 공항을 이용하여 공항이용료를 줄이고, 기내식을 포함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비용을 극소화함으로써 경쟁사보다 훨씬 싼 운임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우스웨스트가 성공하게 된 더 큰 이유는 화목한 가정과도 같은 훌륭한 기업문화에 있다. 그 회사는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웃음경영'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회장과 웃기는 직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늘 웃음꽃이 만발하고 함께 즐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예컨대 스튜어



불자 세상보기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

웃음은 경영을 춤추게 한다

디스가 휴연금지 안내를 할 때는 "부득이하게 휴연하실 손님은 비행기 문 밖으로 나가세요. 문 밖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상영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여 승객들을 웃기기도 한다.

사우스웨스트 본사는 1층에서 5층까지 모든 벽면에 직원들의 가족사진이 준비하기 때문에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기업을 냉정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화목한 공동체로 본다.

이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기업문화가 경쟁사

에 비해 승무원에게 적은 연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훌륭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모두 미소를 띠거나 멋진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다.

웃음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 준다. 잘 웃으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 나아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 준다. 최근에는 웃음치료를사라는 전문 직종까지 등장했다. 이와 같이 웃음이 가정경영과 기업경영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식사회

에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있는 자원이었지만, 이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되지 않고 창의성과 감성이 중시되는 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웃음에 기반을 둔 가족 같은 조직문화가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모든 성인이 최고의 덕목으로 말씀하신 것은 한마음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과 공자님의 인(仁)이 모두 한마음을 의미한다. 지혜사회에 있어서 경영의 최고 덕목은 한마음경영이다. 한마음경영이란 조직구성원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웃음이 없는 조직에서 한마음경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가족들의 표정을 둘러보라. 우리 회사는 왜 이런 성과가 잘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직원들의 표정을 둘러보라. 아니 거울을 통해 자신의 표정부터 둘러보라. 그리고 웃음이 꽃피는 가정과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부터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기 바란다. 웃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웃음도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 오늘부터 가족과 조직구성원들과 고객까지도 함께 즐기면서 행복을 나누자. 그것이 한마음 경영으로 가고 지혜경영을 실천하는 길이다. 웃음은 경영을 춤추게 한다.

불자의 눈

'희망의 연등'을 밝히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감사와 축하의 잔치로 이어지는 월에 부처님오신날이 있어 불자들은 더 즐겁다. 이미 절에서는 행형색의 연등이 내걸렸고 거리거리에도 연등이 걸려 밤이면 아름다운 불빛으로 길을 장엄한다.

부처님은 불타니 동산에서 태어나 사방으로 일곱 걸음은 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외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탄생했음을 알리고 인간은 바로 가장 존엄한 존재임을 알리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간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의 길이다. 이 길은 인간과 동리의 도리에서부터 <열반경>에서도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음(衆生悉有佛性)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세상은 어떠한가? 인간의 송고한 권력과 명예와 재물 앞에서 빛을 바래가고 있다. 누가 진정한 인간인가? 이 엄연한 인과의 도리 앞에서, 인간의 인구는 자신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불성을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사찰을 찾아가서 연등을 밝히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아직 정법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 법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는 '보살'들도 얼마든지 있다. 비관적인 눈길로 보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희망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밝고 아름답다.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보다 경건하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연등을 밝히자. 그렇게 밝힌 연등이 가장 먼저 비춰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불성이 아니겠는가?

울원령 제정, 한국불교의 비전

조계종이 '울원령'을 제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울원령이란 많은 불자들이 "아니 아직 그런 법조항이 없었던 거가요?"라며 의아해 한다는 전언이다. 잘 알다시피 총림의 본 요소는 선원 강원 울원 염불원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선불교 중심의 조계종에서는 그간 울원령의 설치에 대해 한해 왔다. 울원 역시 마찬가지다.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스님들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울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만큼 계율에 대해 철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 들어는 것이다. 그래서 울원의 설치는 총림 구성과 관련이 등한시 되어 왔고 관련 법령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울원을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겠다는 중단의 의지가 표출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울원이나 교수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교육 연구 과정도 엄격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계율에 대한 승가의 인식이 상당히 견고해질 것을 믿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울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갖추는 것보다 승가는 물론 재가불자들이 계율 정수보다 투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율은 '하차라'는 제약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계율의 수행은 필연적 수단은 관세음보살을 구하고 계율을 연구자들의 몫이라는 인식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울원의 기능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비전이 아닐 수 없다.

'종교자유' 칼럼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는 교사나 학교장 개인의 종교성향도 문제지만, 그보다 종교 사립학교 내에서 제도화·관행화 된 강요나 차별의 폐해가 더 크고 고질적이란 점에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인권문제로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초법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기독교적·권력화 된 일부 종교계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새삼 요구되고 있다.

종교 사립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 모르거나 간혹 문제가 불거져도 그저 교사나 학생 한 개인의 특수한 문제이겠거니 하며 남의 일처럼 생각해온 게 사실이다. 설사 일부 국민들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다가 결국은 입시라는 중대사를 핑계 삼아 마음속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기던 사안이었다. 종교사학 입장에서 보면 입시를 불모로 아무 거릴 것 없이 마음대로 강제 종교교육을 해왔던 셈이다.

그러다가 3년 전 한 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의 종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실상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생인권'과 '종교인권'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2004년 6월 16일, 당시 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자 학생회장이기도 했던 강의석 군이 아침 교내 방송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거부합니다'

라고 선언, 강제가 아닌 예배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달라고 주장하였다. 강 군은 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한 달 간 1인 시위를 하고 45일간이나 단식도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동안 수십 년 간 사실상 '금기'에 가까웠던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예배 및 기도 강요를 인권차원에서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해 7월 학기말 시험 중 학교로부터 제적 통보를 받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발전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그 후 법원의 복학 판결과 강 군의 대학진학으로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내 종교 강요 역사적 사건...종교인권 사회 이슈로"

자유와 인권 관련하여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도대체 대광고에서 종교로 제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이 단식까지 하며 사회에 호소하려 했는가. 학교와 국민을 향해 강 군이 말하려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학교는 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전체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 오전 한 시간씩 개신교식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한다. 그 외에 매일 아침마다 짧게 열리는 아침예배 때는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를 믿는 학생이라도 들어가며 '기도'를 해야 했고, 입학식 때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교

육을 받았다는 '선서'를 해야 했으며, 학생회 입원 자격에 '교회를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학교 규정 때문에 타종교학생은 아예 입후보 자격도 없었다고 한다.

처음 대광고를 배정받았을 때 종교가 없는 강군은 '기독교 학교'라는 것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교 소개를 본 뒤, "인성교육이 목적이지만 설마 종교를 강요하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스스로 합리화 했다고 한다. 1학년 말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나가려 했을 때 '종교'가 걸림돌이 되어 교목실장 교사와 상담했을 때만 해도 "기독교



학교내 종교자유 실현을 촉구하는 강의석군의 기자회견 모습.

를 종교가 아닌 서양철학으로 공부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1년 정도 교회를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 군은 "2년 전 종교를 이유로 떠나 갔던 친구, 예배 때마다 나와 같이 얼굴을 찡그리던 친구들, 말없이 잠들던 친구들, 입만 벌고 거러만 친구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해야 하니,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아예 학생회 간부로서 나서지도 못하다... 이런 교육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을까?

강 군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모두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을 것이며, 기독교계 학교의 대부분이 이런 식의 종교 강요를 해왔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면,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생각해 보라. 불교인이 평화화 제도 하에 국가에 의해 기독교 학교에 강제 수용되어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며 찬송가를 부르고, 게다가 돌아가며 기독교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의 종교폭력에 익숙해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데 반해 강 군은 자신의 이해보다 사회의 개선을 위해 힘있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국민 모두 내일처럼 관심을 갖고 사회적 합의와 다짐의 장치를 새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차례다.

Advertisement for 'Gungang Jangsa' (궁강장사) featuring a computer interface, a calendar, and promotional text for a 'Four Pillars' program.

Advertisement for '4 Pillars'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featuring a large calligraphic character '命' and detailed text about a book on 'The Importance of the Four Pillars of the Heavenly Path'.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

-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12품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생활중 추첨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시켜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이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을까?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dvertisement for '성지관음' (성지관음)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service in Gyeonggi-do.